

‘안전요원 없이 운행(SR)’ 보도 관련 철저히 조사하여, 시정조치 하겠습니다.

- 철도안전 민관 합동조사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특별 점검
- 위반사항 관련 시정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4.4) >

◆ 안전요원 없이 운행도.....SR “직원실수”

- ‘22.6.7 부산발(05:35분경) SR 열차가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160명을 태운 채 부산역-동대구역 구간을 운행, 규정 위반으로 담당자 6명 등 징계(’22.10.) 확인
- SR은 현충일 수요에 맞춘 열차 증편 과정 중 직원실수로 객실장* 배치누락 해명
- * 비상시 객실 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로서, 필요시 차량 경고장치 조작 등 업무 수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안전 담당자인 객실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운행했다고 알려진 SR 차량에 대하여,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철도안전 관리체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.

- 이를 위하여, 민관 합동조사단(민간전문가, 국토교통부, 교통안전공단)을 즉시 구성하고, 철도차량 운전규칙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책교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, 철도 범죄 등 유사 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” 며, “시정조치는 물론, 유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투입계획과 승무원 투입계획을 연계하는 방안 등 관련 절차 개선 등도 병행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임연우 (044-201-4616)